

1일 1지문으로 1등급 달성 Project- 배인호 초격차(超格差) 국어 제공

41/200

# 新수능 국어 최적화 기출 분석

2017학년도 6월

[34~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아랫도리 다박술 깔린 산(山) 넘어 큰 산(山) 그 넘엇 산(山)  
안 보이어 내 마음 똥똥 구름을 타다.

우뚝 솟은 산(山), 묵중히 엮드린 산(山), 골골이 장송(長松)  
들어섰고, 머루 다랫넝쿨 바위 엉서리에 얽혔고, 살살이 떡갈나  
무 역새풀 우거진 데 너구리, 여우, 사슴, 산(山)토끼, 오소리, 도  
마뻬, 능구리 등(等), 실로 무수한 짐승을 지니인,

산(山), 산(山), 산(山)들! 누거만년(累巨萬年) 너희들 침묵(沈  
默)이 흠뻑 지리함즉 하매,

산(山)이여! 장차 너희 솟아난 봉우리에, 엮드린 마루에, 확  
확 치밀어 오를 화염(火焰)을 내 기다려도 좋으랴?

핏내를 잊은 여우 이리 등속이 사슴 토끼와 더불어 싸릿순  
침순을 찾아 함께 즐거이 뛰는 날을 믿고 길이 기다려도 좋으랴?  
- 박두진, 「향현(香峴)」 -

(나)

우리가 물이 되어 만난다면  
가문 어느 집에선들 좋아하지 않으랴.  
우리가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  
㉠ 우르르 우르르 비 오는 소리로 흐른다면.

흐르고 흘러서 저물녘엔  
저 혼자 깊어지는 강물에 누워  
죽은 나무뿌리를 적시기도 한다면.  
아아, 아직 처녀인  
부끄러운 바다에 닿는다면.

그러나 지금 우리는  
불로 만나려 한다.  
벌써 숲이 된 뼈 하나가  
세상에 불타는 것들을 쓰다듬고 있나니

만 리 밖에서 기다리는 그대여  
저 불 지난 뒤에  
흐르는 물로 만나자.  
㉡ 푸시시 푸시시 불 꺼지는 소리로 말하면서  
올 때는 인적 그친  
넓고 깨끗한 하늘로 오라.

- 강은교, 「우리가 물이 되어」 -

(다)

㉢ 눈은 따뜻하다. 오버를 걸치고 눈길을 걸을 때 이마를  
적시는 함박눈은 가슴속까지 따뜻하게 한다. 작은 산 너머  
거의 눈에 파묻힌 초가집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가 삶의 길은

온도를 체험케 한다. 눈이, 함박눈이 쏟아지는 저녁, 잊고 있던  
친구들의 얼굴이 각별히 그리워지고 마치 두터운 옷 속에 간직  
된 체온처럼 그들을 생각하는 따뜻한 정이 조용히 피어남을  
느낀다. 안부 편지를 쓰고 싶어지고 어디선가 정다운 전화를  
받고 싶은 것이다. 이웃 동네와 교통이 단절된 자기 집에 식구  
들과 모여 앉아 따뜻한 온돌에 발을 뻗고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느낀다.

눈은 조용하다. 사뭇 쏟아지는 함박눈은 한 송이 한 송이가  
무한한 이야기를 도란거리는 것 같으면서도 모든 것을 더욱  
고요하게 한다. 그것은 고요한 가락들로 이루어진 웅장한 교향  
곡이라는 인상을 준다. 특히 어두운 밤중에 창밖으로 그칠 줄  
모르고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면 온 세상 아니 온 우주가  
무한히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하다.

눈이 쌓이는 밤은 고요하다. 그러기에 고독하기 마련이다. 그  
러나 그 고독은 삭막하거나 허전하기보다는 호젓한 내용을 갖  
게 한다. 고요 속에서 나는 나 자신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새  
삼 의식하게 되고, 오랫동안 잊혀졌던 스스로를 다시금 발견하  
고 생각하게 된다. 나의 삶, 나의 위치, 우리와 자연의 관계를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이  
다.

그래서 눈은 명상적이다.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 혼자 방  
안에 앉아 있으면 책상 위의 전깃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어가지  
지 않는다. 각별한 무슨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 때문이 아니  
다. 어느덧 명상에 잠기게 되기 때문이다. 이런 밤 누가 사색가  
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누가 철학가로 변하지 않겠는가. 무  
한히 고요하고 거룩할 만큼 순수한 시간이다. 사색이 날개를  
펴고 자유로운 명상에 잠긴다. 눈이 쌓이는 깊은 밤 혼자 앉  
아 있는 서재는 사색의 보금자리요, 책상 위에 밝혀 놓은 램  
프불은 사색의 꽃이다. 눈 내리는 밤늦게까지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철학가의 모습은 자연스럽다.

- 박이문, 「눈」 -

34.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 표현을 통해 회고적인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 ② (나)는 대립적 이미지를 통해 계절의 변화를 부각하고 있다.
- ③ (가)와 (나)는 청자를 명시적으로 드러내어 화자의 바람을  
표출하고 있다.
- ④ (가)와 (다)는 비유적 표현의 반복을 통해 과거의 체험을 드  
러내고 있다.
- ⑤ (나)와 (다)는 특정 어구를 점층적으로 나열하여 긴박감을  
조성하고 있다.

35. (가), (나)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는 산이 ‘누거만년’ 동안 ‘침묵’하고 있는 것을 ‘지리함즉 하’다고 말함으로써 화자가 마주한 현실이 지향하는 세계와 거리가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② (가)의 ‘내 기다려도 좋으랴’와 관련하여 볼 때 ‘화염’이 치밀어 오르는 것은 화자가 기대하는 산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겠군.
- ③ (나)에서 ‘만난다면’, ‘좋아하지 않으랴’라고 말하는 화자는 자신이 소망하는 만남이 앞으로 실현되기를 바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④ (가)의 ‘내 마음’이 ‘둥둥 구름을 타’는 것은 ‘큰 산’, ‘그 넘었 산’을 바꾸려는 화자의 바람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나)의 ‘키 큰 나무와 함께 서서’는 화자가 현실에서 벗어나 자연과 하나가 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한 것이겠군.
- ⑤ (가)의 ‘핏내를 잊은~즐거이 뛰는 날’은 평화로운 세계를, (나)의 ‘넓고 깨끗한 하늘’은 화자가 ‘그대’와 만나 진정한 합일을 이루려는 세계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36.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물의 결빙감을, ㉡은 불의 충족감을 비유한다.
- ② ㉠은 비의 부정적 의미를, ㉡은 소리의 긍정적 의미를 함축한다.
- ③ ㉠은 비에 대한 불안감을, ㉡은 소리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한다.
- ④ ㉠은 물의 생동하는 힘을, ㉡은 불이 소멸하는 상황을 형상화한다.
- ⑤ ㉠은 상승하는 물의 움직임, ㉡은 하강하는 불의 움직임을 구체화한다.

37. (다)에 드러나는 글쓴이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글쓴이는 ‘온 세상’이 ‘깊은 고요’ 속에 파묻혀 가는 듯한 모습을 보며 스스로에게 연민을 느끼고 있다.
- ② 글쓴이는 ‘눈이 쌓이는 깊은 밤’에 ‘서재’에 앉아 ‘철학가’의 경지에 미치지 못하는 자신을 성찰하고 있다.
- ③ 글쓴이는 자아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눈이 쌓이는 밤’에 체험하는 ‘고독’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다.
- ④ 글쓴이는 ‘눈이 소리 없이 쌓이는 밤’에 ‘사무적인 일이나 공부’와 같은 일상적인 일들에 새롭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옛 이야기를 나누는 삶의 따뜻함’을 떠올리면서 유대감이 ‘단절’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바라고 있다.